

설령탕, 수라상의 어원 고찰

김 기 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1996년 10월 11일 접수)

The Study on the Etymology of Solontan and Sura-Sang

Ki sun, Kim

Department of language,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ceived October 11, 1996)

Abstract

The two Korean words, Solon-Tang and Su-Ra-Sang, are generally assumed as the names of Mongolian foods which seem to have been used in Korea due to the influence from the enhance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Mongolia and Koryo. This indicates that the two words have very important meaning in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 culture in the central Asia in those days and the terminologies used in the palaces in the eras of Koryo and Chosun and so have attracted continuously the related scholars' attention. 1. The theory of folk etymology; it is originated from its cooking that first they cut meat into small pieces and put them into a cauldron and boil *sulrong sulrong* (which means such boiling state in that its water bubbles up) for a long time. 2. Early of the Chosun time, the king himself comes to 'Sun-Nong-Dan' where he teaches the people how to farm and hold a large festival and after that they boil the cow meat soup and feed the people around there. At that time, they name and call the *kuk-bub* (soup with rice) which they eat at the 'Sun-Nong-Dan' 'Sun-Nong-Tang'. 3. The India Sanskrit *Sura*, a kind of liquid (in which component that have someone who takes it drunken) which gods enjoy themselves over, comes into the palace on the latter half of Koryo time via Mongolia and affects and becomes the Korean words. 4. The Mongol *Suru* or *Sulru* which is a cooking in that they boil meat putted in plain water comes into Korea under the special historic relation between Mongolia and becomes *Solon-Tang*. For the details of the above mentioned theories, we will fully discuss the origin through studying concretely the related books and mutual comparing history, linguistic periods and phonetic changes accordingly and the changes in meaning and vocabulary forms here.

I. 서 론

13~14C에 한국어에 일부 몽골어가 차용된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하지만 차용어 연구에 있어 현대 한국어에 전승되어 남은 몽골차용어를 시기에 있어 오직 그 특수한 역사적 관계로 X-III-XIVC에 국한시켜 소급 연구하는 것은 어휘의 계통연구에 있어 어느 정도 그 충분 조건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927년 E. D. Polivanov의 한국어를 알타이제어들과 비교한 논문에서 한국어와 한국어에 차용된 몽골어휘들의 상호 연관성들이 고대 알타이제어의 조어법의 한 특성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그 일례로 국어의

“수라상”과 “설령탕”은 일반적으로 몽골의 음식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고려와 저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 차용된 것으로 보는 어휘들이다. 이는 당시의 중앙아시아의 식(食)문화와 고려 조선시대의 궁중용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휘라는데서 지금까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수라상”, “설령탕”을 그 의미상 분리 독립시켜 역사적 전통과 그 계통에 있어 어떤 의미변화를 거쳐 왔는지 그리고 그 어형의 형성과정을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한다.

II. 본 론

일반적으로 궁중용어 “수라”와 “설령탕”의 유래에 대한 어원 연구는 대략 다음의 4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소의 내장, 대가리, 발족 등을 가마에 넣고 물을 넣어 오랜 시간 설령설령 끓여 만들었다는 민간 어원 설이다.

둘째는, 조선시대 초에 왕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던 선농단(先農壇)에 납시어 생쌀과 생기장, 소 돼지를 놓고 큰 제전을 올린 다음, 친경(親耕)을 하고 행사 후 가마솥에 소로 국을 끓여 백성들을 불러 먹었는데 이때 선농단에서 먹게 된 국밥을 “선농탕(先農湯)”이라 이름지어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셋째는, 원래 인도의 범어에 sura(여성명사)라고 하는 신들이 즐겨 마시는 액체(취하는 성분이 들어있는)가 몽골을 거쳐 고려 후기에 궁중에 들어와 국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설이다.

넷째는, 고기를 맹물에 끓이는 조리법으로 몽골어의 수루, 술루가 고려 때 저들과의 특수한 역사적인 관계 하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수라(왕께 올리는 밥), 설령탕이 되었다는 설이다.

서술한 위의 설들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그 관련된 문헌들과 상호 비교, 역사언어학적으로 시기와 그에 따른 음운상의 변화, 의미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원류를 詳論해 보도록 한다.

설령탕의 유래에 관하여 그간 북한에서 출판된 어원 사전이나 민족관련 자료¹⁾에서는 소의 내장, 대가리, 발족, 꼬리, 사등뼈 등을 가마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은 다음 국물이 뽀얗게 되도록 오랜 시간 설령설령 끓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민간어원설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위의 민간어원설에 따른 설령탕의 조리법과 문헌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설령탕은 다른 음식처럼 미리 간을 맞추지 않고 삶아낸 소의 내장, 대가리 고기를 씻어서 한두점씩 국물에 등등 띄워 뜯배기에 담아 고추가루, 후춧가루, 소금, 파 등을 함께낸 것을 식성에 따라 놓아 먹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뜨끈한 설령탕 한 뜯배기를 땀을 흘리며 먹고 나면 추운 겨울에는 얼었던 몸이 축 풀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몸이 거뜬한 감을 느끼게 되며 갖가지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 있어 소화가 잘 되고 건강과 장수에 좋다고 한다.

이조시대의 기록²⁾에 의하면 궁중 연회상이나 왕께

올려지는 수라상에 탕은 기본 부식물의 하나로 증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식에 관한 이조시대 여러 기록에 보면 궁중에서 쓰인 부식물 탕³⁾에 설령탕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설령탕은 그 始源이 언제이던가에 민간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둘째로 조선왕조의 선농단(先農壇)이 지금의 설령탕(雪濃湯, 雪農湯, 선농탕, 설농탕, 설롱탕)으로 되었다는 일반적인 민간 어원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초기에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터에 선농단(생쌀과 생기장, 소, 돼지를 놓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친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後稷氏)를 제사지내던 곳)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절기가 봄으로 접어들 때 경칩이 지난 돼지날을 가려 큰 제전을 올린 다음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의례(籍田之禮)를 행하였고 행사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둔 가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하고 소로는 국을 끓였는데 이 국밥을 구경꾼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을 불러서 먹었던 데서 설령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선농단에서는 가뭄이 극심한 해에는 이곳에서 기후제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그러던중 성종6년 정월에 왕이 그의 종친 월산대군(月山大君)과 제상 신숙주와 함께 납시어 서민과 합세하여 밭을 갈았다고 한다. 행사 후 같이 한 백성들을 위로하며 국밥과 술을 내렸는데 이 때부터 선농단에서 먹게 된 국밥을 선농탕(先農湯)이라 이름지어 부르게 되었고 그 이름이 지금의 ‘설령탕’으로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선농탕이 설롱탕이 된 것은 우리말의 당소리(자음)의 자음점변 현상으로 그러한 발음의 현상에 따라 세월이 흐르면서 국물빛깔이 흰 눈과 같이 희다고 하여 先字에서 눈설(雪)자로 그리고 국물이 진하다는 뜻에서 農字에서 무르녹을 농(濃)자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한 자의 의미도 점차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空湯조리법의 역사나 당시의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셋째로, 인도 범어의 sura(n)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서라고 볼 수 있는 리그베다(약 B.C 1500~1200년)에 보면 sura라고 하는 어휘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래 베다에 등장하는 신들이 즐겨

¹⁾조선의 민속 전통. No. 1.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4 어원 사전, 동북조선 민족교육출판사. 1989.

²⁾경국대전, 15C말~16C초에 나온 <수문쇄록>, 18C~19C 궁중음식에 대해 설명한 <해동죽지> 증편·음식명물, <규합총서> 주식의 육품, 그리고 <진찬의 কে>, <정리의 কে>를 들 수 있다.

³⁾추복탕, 잠탕, 칠계탕, 열구자탕, 완지방, 저포탕, 용봉탕, 금중탕, 홍합탕, 계탕(닭탕) 등이 주로 올려졌다.

마시는(취하는 성분이 있는) 액체(즙)의 의미로서 신성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sura 외에도 일명 감로수라고 할 수 있는 soma가 베다에 역시 신성한 의미로서 신화대목에 나타난다. 그 신화에 신들이 sura를 마시고 어느 정도 흥겨운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대목이 가끔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범어의 sura와 soma가 일종의 마시고 먹는 액체(술, 과즙)라는 의미의 어휘로서 한국어의 '술'과는 음운대응과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지만 국어의 수라와 설령탕이 범어의 마시고 먹는 액체(술)의 의미와는 그 의미상에 있어 좀 거리가 멀다 하겠다.

넷째로, 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 맹물에 간을 맞추기 위해 큰 가마솥에 소금을 넣고 끓이는 몽골의 조리법(술루)이 고려후기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설령탕이 되었다는 설은 다음과 같다. <몽어 유해>에 고기 삶은 국물-공탕(空湯)을 몽골어로 "슈루"라 기록하였고 <方言輯釋>에서는 공탕을 한나라에서는 공탕(Kongtang), 청(만주)나라에서는 실러, 몽골에서는 술루라고 한다고 하였다. 위의 만주·몽골어의 실러·술루가 설령탕이 되었다고 보는 설이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 실러·술루가 한국어의 수라(왕개 올리는 밥)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밥"의 한국말은 고대에서부터 이조 때까지 같은 말로 표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계림유사>에 보면 반(飯)을 박거(朴擧)로 그음을 표시하였고 <화한 삼재도 和漢 三才圖>에도 밥은 바비(波備)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고깃국을 뜻하는 설령탕과 수라상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몽골의 슈루, 술루라고 하는 공탕이 몽골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몽골에 있어서의 설령탕의 조리법의 전통은 참으로 단순하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몽골 민족이 수 백년 전에 사용하던 가마솥은 소 2마리 또는 양, 염소 12마리를 통째로 집어 넣어 끓일 수 있는 용량의 큰 가마⁴⁾ 솥으로 끓는 물에 소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 소금을 넣고 끓이는 곱탕이라 불리는 바로 그것이다.

몽골의 곱탕은 고대로의 유목문화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농경문화와는 구별되는 고기가 주식이라는 것에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몽골민족에 있어서의 곱탕의 가치와 효용성은 바로 전쟁터에서 드러나는데 전장에서 수많은 군사들의 식사문제를 조리하기에 쉽고 배급에 용이한 급식이 바로 이 곱탕이었던 것이다. 몽골민족은 전통적으로 첫갈과 자기 그릇을 항상 패용하고 다니면서 이웃집의 식사대접을 받을 때나 전쟁

시에 큰 가마솥에 끓인 곱탕을 바로 자기 그릇에 받아 배를 채웠었던 것이다. 몽골의 곱탕은 주재료가 양, 소, 염소로서 그 중에서도 양이 가장 으뜸이다. 몽골 인들은 고대로부터 양을 좋아해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항상 위의 곱탕을 끓여 몸을 보신했으며 라마승들도 즐겨 먹었다고 한다. MNT-279절에 보면 "우리마다 양 100마리당 1마리씩 두살 배기 양을 해마다 바치게 하라"는 대목에서 칭기즈칸 왕족 혈통들이 얼마나 이 곱탕을 선호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오고데이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양을 잡게 했던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몽골 민족의 탕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 하겠다. 여기서 MNT에 나타나는 곱탕 -sülen의 음운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몽골어에 sigüs-un širege/국 상(床)/라고 하는 복합어에서 -sigüs(국물)라는 단어가 sülen이라고 하는 어휘와 이웃하여 sülen sigüsun(탕국)이라고 하는 또다른 합성어가 파생된 조어법의 특징이 있다. 한국어의 설령탕(solontan)이라고 하는 음식명도 그 조어법에 있어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solon과 tan의 두 어휘의 발음이 이웃하여 불려지는 과정에서 한 합성어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MNT에 280·281절에 sülen-e sürüg, sülen/탕국/라고 하는 복합어들은 지금의 현대 몽골어의 양고기국물, 수프(탕)국 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위의 sülen을 다른 몽골제방언에서 찾아보면 몽골문어에 silü(n), 오르도스방언에 sölö, khalkha 방언에 sölö(n), 칼묵어에 söln~süln으로 i breaking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는 음운상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 자료들에서 보면 몽골어의 sülen이 한국어의 solon과 음운적으로 그 기원이 어느 정도 13세기 전후로 당시 두 국가의 활발한 민속적 교류에 따른 차용어일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것은 몽골어의 고대 음운 변천 발전과정을 보면 고대 몽골어에 s 무성음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하긴 중세 몽골어에 전승된 무성자음 s다음에 위치하는 i모음이 breaking 되는 과정에서 si로 발음했던 시기의 s가 후에 š 무성 치찰음이 된 법칙이 나타난다. 그 흔적이 위그르정 몽골문자에 한 시기에 šile로 쓰여졌던 것으로 고대 몽골어의 음운론적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MNT-에 sülen으로 기록된 것 역시 단모음 i 앞에 위치한 무성자음 s가 š가 되고 단모음 i가 역행동화되는 과정에 ü음화 된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몽골어의 sül은 東유고르어에 (내몽골 방언)-selen, 위그르어에 -čylai로 나타나며 그 의미가 고기를 끓인 국물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하여 고기국

⁴⁾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토우아이막의 만치르 히드 라고 하는 사원에 약 200년전 청나라시대에 사용되어진 큰 가마솥이 보존되어 있다.

맛있는 물과 관련되어 고기국, 고기국물로 된 전통을 엿볼 수 있다.

현대 몽골어의 us(물)은 내몽골 방언에 -su로 나타난다. 이 어휘들은 한 시대 함께 쓰였지만 몽골제방언(친족방언)에 -su형태로 남았고 몽골 KhalKha어에는 복합어의 어말형태소로 전승되어진 것으로 그 흔적이 지금의 -silsun(침), -šegesü(소변), sigüs(국물), širgen(부드러운 물기가 항상 젖어 있는 잔디), cigeg(물기), šibar(진흙), šiber(발가락 사이에 나는 땀) 등 많은 어휘의 어근, 접미사에서 물의 의미로 쓰여진 -us, -su형태소가 한 계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자료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우랄제어의 코미스어에 šor, 오드모르트어에-šor, 망스어에 -tür, 항트어에-tor⁵⁾라고 하는 어휘들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핀어에 -Var, 카렐어에-Vaura, 삼어에-Var는 모두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위 어휘들에서 보면 고대 이른 시기에 몽골어 šibar(진흙)의 형성이 šier근 뒤에 -bar는 흙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두 어휘가 합성되어 -šibar가 형성된 것과 그 의미가 물에 젖어 스며들은 흙 즉 진흙이라는 뜻으로 정착된 복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액체(물)를 silsun, 몸에 스며들어 정화되어 배출되는 물을 šegesü, 물이 많은 습한 지대에서 나는 짙, 풀을 -sirgen이라고 명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끓여 맛을 내게한 물을 šülen이라고 했던 것은 13~14C 한국어에 전승될 때에 solon이 된 것은 몽골의 제1음절 ü모음이 한국어에 -o모음과 위에 서술한 자료들에서 살펴볼 때 고대 몽골어의 치찰음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지금의 us(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su,-si형태로 존재했었으며 알타이 제어들에 치찰음이 형성된 그 당시에 ši, shu, so형태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us(물)의 고대의 음운 형태의 변천 발전 과정을 알타이 제어들의 공통된 특성에서 볼 때 *pusun>fusun>husun>usun>us의 변천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국어의 설령탕에서 설령에 붙는 tan접사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tan을 중국어의 湯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앞에 언급한 조선 시대의 선농단의 단으로도 보는 것이다. 람스테드는 한국어의 이 탕에 대하여 그의 논문⁶⁾ 한국어의 tan은 첫째 무엇을 걸다, 달다의 tal과 또 다른 의미는 맛있다고 하는 형태의 tal로서 이것은 음식을 맛나게 하다.

조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고대 한국어의 tan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solontan은 그 역적 전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수 한국어의 의미 자체 그대로 맛있는 국이라고 하는 두 어휘의 발음이 이웃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한 복합어가 파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tan을 다른 측면에서의 고대의 의미를 몽골어에 그리고 만주 투구스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만주어의 tan-su는 좋은, 향기가 풍기는,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뜻으로 몽골어의 tangsug를 붙여 말했던 本 어휘의 고대의 의미가 과연 무엇과 관련되었던가를 그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어휘라 하겠다.

이 모든 것에서 볼 때 위의 자료들에 기준 하여 보면 한국어의 설령탕은 tangsug(가장 좋은) 맛있는 고기국이라고 하는 중세 유목문화의 전통을 지닌 몽골과의 그 역사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그 시기의 성격에 맞춰 보존해 온 것이라고 볼 가치가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수라(슈라)

슈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몽골어 어원설이 널리 유포되어 왔으며 근대로부터 현재까지도 학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어휘이다.

국어에 있어서의 수라(水喇)의 의미는 왕과 왕비가 받는 아침, 점심, 저녁의 밥을 수라라 하고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하였다. 이 의미 외에 궁궐 안에 여러 수라간(수라를 준비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수라는 궁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두 번째 의미로는 터키어에 이와 동일 한 “궁중, 최고회의”를 뜻하는 shura가 있다.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쓰인 수라상은 궁반, 켈반이라고 불리는데 궁반은 유면의 형태가 대개 원형이고 반의 아래에 둘러 맨 나무 띠에는 봉황새 무늬를 뚫어 새김하고 다리에는 용 대가리를 새기었다⁷⁾.

수라상 차림은 일반적으로 원반(등근 상)에 결상2개(소형의 등근 상과 책상반)가 합쳐져 3개로 구성 되었다. 원반은 기본음식상으로서 주인공이 앉은 정면에 놓였다. 결반은 원반을 받는 사람의 오른손 곁에 붙여 놓는 상이고, 책상반은 원반고 결반의 뒤에 놓는 상이었다. 당시의 궁중상차림은 바라보는 상(양상)의 일종으로 상을 받는 주인공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상위에 차리는 음식도 더 높이 고여 올리는 것이었다. 수라상은 상위에 차려놓는 반찬가지수도 가장 많은 12첩이 었다. (양반들과 부유한자들은 7첩, 9첩까지 차림

⁵⁾1969 5.43p

⁶⁾1953. 95쪽

⁷⁾<정리의 제> 권4 찬품

수 있었다) 왕궁에서는 원반식사가 끝난 다음 음료와 생실과 조과, 떡, 탕 등을 차린 상을 내는데 이것을 다과반이라 하였다.

〈정리의 궤〉에 의하면 아침 다과상도 18종의 음식을 차렸으며 점심 다과상은 17종, 저녁 다과상은 12종이었다고 한다.

먼저, 몽골어에 국어의 수라(水喇)와 그 의미에서 대응될 수 있는 širege(상)의 의미는 上部가 평평하고 넓은 4각형의 받침대로 고정시킨 고기음식과 유제품을 놓고, 여러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는 사항 등의 목적에 부합시킨 상(床)을 뜻한다. 몽골어의 širege를 다른 알타이 제어들에서 같은 의미의 어휘들을 만주-투구스(합니강)어군의 방언들에서 찾아보면 나나이어에 -dere⁸⁾ 에행어에 -sire, 설령어에 -siree, 여진어에 -dere⁹⁾ 터키어군의 위그르어에 -širei, 터키어에 -sire¹⁰⁾ 형태로 나타나며 모두 몽골어의 šireg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몽골 구전문학의 전통 로망작품들에서 살펴보면 <가죽을 곱게 덮어, 상을 차리게 하자> 라고 하는 대목은 고대 몽골 민족이 širege를 어느 존경의 대상으로 사용했었다고 하는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고대 한족의 역서들을 세밀히 살펴 보면 흉노시대로부터 거란족에 이르기까지 용의 슈라(luugin šūra)라고 하는 무속의식을 행했던 전통을 거란의 왕이 Dao-tson궁에 왕위계승시 용이 새겨진 šūra(제사상)였었다고 하는 A.D 1100년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중앙아시아 알타이제어들에 širege를 지금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베리아의 깊은 타이가 지역에서 중국의 만리장성까지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 민족들은 상(床)을 무속(샤머니즘)신앙에 사용해 왔던 전통이 거란에 전승되어 내려온 것에서 용의 무늬가 새겨진 거란의 šūra라고 하는 상의 의미와 국어의 상의 다리에 용 대가리를 새겨 넣은 수라상과 터키어의 궁중을 뜻하는 shūra와의 관계이다. 국어에서는 오직 궁중의 왕께 올리는 음식상을 수라(슈라)라고 하지만 고대 몽골 민족인 거란의 왕위 계승 때와 제사의식에 쓰였던 šūra, 그리고 궁중의 의미를 뜻하는 고대 터키어의 shūra가 음운, 의미의 측면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음운론적 문제를 살펴보면 중세 한국어에 명사나 동사어간의 모음조화는 매우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탕은 모음조화규칙이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 수라에 있어서는 모음조화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까지 궁중용어에 차용이 된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란어의 -šūra, 터키어의 -shūra, 인도 범어의 sura, 한국어의 수라가 모두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공통점은 그 始源이 어디이던간에 처음부터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어떤 한 전통을 모여주고 있는 중요한 실례들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수한 역사적 배경도는 환경하에서 차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다른 한가지 관심 있게 연구 할 문제는 몽골어의 širege라는 단어의 역사적 전통과 의미변화의 변천 과정이다. MNT(몽골비사)에 기록된 것으로는 몽골 민족은 카불(Qabul qan)의 시대로부터 초기의 Tenger(하늘)에서 기원한 민족의 왕위계승의 전통을 자세히 살펴 보면 몽골 민족들 사이에 <qayan širege(왕위)> 계승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qayan širege>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사서에서 볼 수 있다. 하긴 MNT에 나타나는 기록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 오고테이 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에 대하여 279절에 <qayan ecige-yuen gelen-tur sauju>로 기록했다면 281절에는 <ecige-yin yeke oron-tur sauju...>라고 다르게 기록한 것은 흥미로운 기록이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oron-tur sauju/자리(침대)에 앉아/ 의 자리(침대)라고 하는 어휘이다. 이것은 특히 solon어에 -sire라고 하는 어휘가 자작나무 의자, 나무 침대라는 의미로 나타나며 역시 에행어에도 같은 의미로 전승되었다. 위의 사실에서 보면 širege가 몽골어에 사용 되기 이전 oro, oron이라 하는 단어가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함에서 “왕위를 계승하다”라고 하는 몽골어는 현대 몽골어의 qaan širege가 아닌 qaan or sa’uba/왕위에 앉아/ 라고 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MNT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왕위 “계승하다” 라는 표현을 달리 qaan sauri(sayuri)nd-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나타나는 몽골어의 특징은 고대로부터 or sauri, oron sayurin이라고 하는 첩어(같은 의미의 두 다른 형태의 어휘를 반복해서 말하는)가 문헌이나 구어체에 흔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첩어가 고대 중세 몽골어에는 어두 첨가음 음소 -n, -h가 존재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의 첩어 or sauri, oron sayurin은 고대에 *noro sauri, *horon sayurin의 형태로 재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horo-*horon과 sayur가 발음은 다르고 의미는 같은 관계로 한 의미로서 두 어휘를 인접시켜 새 어휘를 만드는 독특한 조어법을 몽골어에서 흔히 발견 할 수

⁸⁾1980. 171.

⁹⁾1977. 426.

¹⁰⁾1979. 170.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의 수라와 고대 몽골어의 horo가 상호 음운 대응될 수 있는 것은 몽골어의 어두음 h는 알타이제어(특히 몽골어)에서 무성자음 s와 전운(轉韻)되는 특성이 현대 몽골어에까지 강하게 그 특성이 남아있다.

이러함에서 고대 몽골어에서 중세 몽골어에 전승된 horo~horon, sayur~saurin, širege이 모두가 한 계통으로서 각각 앉고, 눕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평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져 온 역사언어학적 증명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별히 몽골어에 or der(e)/침대/라고 하는 복합어가 있다. 이 복합어에서 dere는 만주 퉁구스제어에 평평한 상, 책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동북, 중앙아시아에 고대로부터 한 단어가 의미상에 있어 가까운 많은 뜻을 포함 나타냈던 것의 한 흔적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III. 결 론

위에 서술한 자료들에 기준하면 시기상으로 몽골어의 oro(horon) sayur(saurin) širege(siree) dere어휘들이 현대 몽골어의 의미와 가까운 뜻으로 사용됐었던 그 시기에 터키어, 한국어에 수라, 슈라의 형태로 이어진 전통을 추정해 볼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어휘들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어휘들을 지금의 의미와 복합해서 생각해 볼 때 고대 몽골 민족의 제사, 무속신앙과 순수한 소망을 놓고 기도했던 물건을 sauri로 명칭 했던 것이 후에 천신에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širege(širee)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계속해서 인접 국가들에 민족의 특성에 맞게 터키어에는 궁중, 최고회의의 의미로, 한국어에는 몽골의 왕들이 즐겼던 양의 šülen이, 거란의 왕위 계승에 사용된 -šūra 그리고 몽골어의 상의 개념을 나타내는 širee

(širege)와 함께 어우러져 13C에 고려와 저들과의 밀접한 민속 문화 교류 등의 계기로 고려의 궁중용어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국어의 수라를 이웃 국가들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고대에는 한 국가의 왕의 권좌, 천신의 권좌, 궁중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 왕께 올리는 밥, 왕께 올리는 상, 문서를 올리는 상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각각 그 민족 문화에 맞게 변하여 정착된 문화 인류학적 한 특성을 보여주는 어휘라 할 수 있겠다. 요약하건대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 따른 설령당 수라상 외에 한국어에 차용된 몽골어휘들을 상세히 연구하는 것은 고대 알타이 제어들의 초기의 의미, 음운 형태를 복원 소급해 보는 데 있어서 한국어와 몽골어가 큰 역할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 조선의 민속전통,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No.1. 1994.
2. 이기문.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3. 한국어 어원 연구사 강현규 집문당. 1989.
4. 朝鮮の衣食住 조선 총독부 中樞院 民俗苑 大正 五年.
5. 어원사전 동북조선 민족 교육 출판사 이규호. 1989.
6. 蒙古秘史(몽고비사).
7. 몽골 간략 사전.
8. 中國歷代食貨志 上海大光書局刊印.
9. 二十八卷本 辭典. 1994.
10. 朝鮮女俗老 李能和 民俗苑 1927.
11. E. D Polivanov K veprosu, o rodstvennyx otnosenijax korejskogo i 'altajskix' jazykov. Izvestija Akademii nauk SSSR. VI, XXI, 15-17. (英譯 Selected Works The Hague 1994).